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갑자기 진료실 밖에서 큰 소리가 난다.

“내가 겨우 이런 것을 받으려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요?”, “예약까지 하길래, 뭐 대단한 것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겨우 이거 밖에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과가 아직 ‘정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통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나오는 불만의 소리이나, 본래적으로는 ‘의료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불신과 물이해의 소리이다.

요근래 중년이후 나타나는 여러 질병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이 많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며 대부분이 질병의 조기발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직도 선별검사(screening)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건강검진’



주영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부장

들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으로 ‘병든 사람을 일찍 발견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라는 말이 맞지,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라는 말은 현행의 ‘건강검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현재의 ‘건강검진’은 ‘건강증진’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좋은 ‘건강검진(=선별검사)’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선행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검사항목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져 있는 연구는 전무하다.

특히, 집단적 선별검사(예, 혼히 하는 병원별 패키지 검진항목)의 경우는 ‘정형화 되어있는 검진’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의 수익성 측면으로만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는 비록 다소간의 한계 점들이 있지만, 현재 수행되고 있는 '건강검진' 제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제도로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자 한다. 물론, 수검후 1개월정도 지나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수검자(주민)들의 의식문제(싸구려, 형식적이라는 고정관념), 검진기관들의 물이해(저수익성 때문에 박리다매 하려는 경향)가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지적되는데 대부분 '수검자(주민)'의 자세와 '의료인'의 태도에 따라서 그 운영결과는 '천양지차'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표는 지금 우리의 '건강검진' 제도(사업)의 의료에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구 분	병원성이전기(질병이전시기)		병원성기(질병이후시기)		
질병의 과정	병인 숙주) 상호균형 환경	질병원인의 자극형성	병인자극에 대한 숙주의 변화 초기의 명적 변화	질병	회복 또는 사망
인체변화양상	정상	전기-생리적변화	화학적 변화	세포수준의 이상	조직수준의 이상
수검자의 증상 호소상태별	호소안함	검진결과에 이상은 없지만 수검자들이 불편을 호소		검진 결과에 이상이 나오는 단계	
건강문제의 실례		심리적불편감호소, 우울증, 가정생활불안, 사회적불만족	대시물질의 변화로 신체의 이상발생	세포의 변화	암
검사방법의 실례		-뇌파검사	-혈액검사 (암표식자검사)	-MPI	-CT
질병의과정	건강증진운동	특수한 예방(예방접종)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조기치료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	재활
예방차원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	
분야	예방의학 분야		치료의학분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 바람직한 '건강증진' 사업의 표적영역 ■ 현행 '건강검진' 사업의 표적영역

● 대형병원의 종합검진 ●

선별과정 없이 곧바로 대량의 진단적 검사항목의 적용→비효율, 고비용 초래→국민의료비의 상승과 일반인들의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의식 유발

병원의 문턱이 낮아져 있는 것과 친절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의료'의 '공공성'이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병원이나 의료인들이 '인정' 해서라기보다는, '의료를 통한 수익증대'라는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약간은 씹쓸한 뒷맛을 남긴다. #